

# 『平家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문 광 회

동의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Heikemonokatory(平家物語)』

Kwang-Hee Moon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Dong-Eu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Heikemonokatory which was written from 1131 to 1198. The research materials are 36 kinds of men's clothes and ornaments, 6 kinds of women's things, 10 kinds of colorings, and 6 kinds of texti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There were many advanced warriors' clothes. Especially the helmets and armors were very gorgeous. The shapes of warriors' knives, arrows, shields were concretely described. The women's clothes were mostly unchanged from Nara(奈良) period and Heian(平安) period. Women wore clothes on their heads when they went out.

2. One particular thing in color is that the brown color of that period was navy blue which is symbolic of victory. There were some textiles which was woven with the boiled silk thread in the latitude and the raw silk thread in the longitude. Besides, the blackening of teeth, the bobbed hair of boys, and the celebration of one's coming of age were described in the book.

Key Words : 日本平安時代(Heian period of Japan), 武士의 갑옷(helmets and armors), 直垂(Hitatare), 僧兵의 복장(costume of monk soldier), 褐色(navy blue), 練貫(Nerynuky)

### I. 머리말

『平家物語』는 1131년부터 1198년까지의 약 7년간에 쓰여진 것으로 작가는 미상이다. 내용은 일본 칸무(桓武)천황의 자손인 헤이케(平家)가 일개 지방

장관의 신분에서 강한 무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것이 오래지 않아 권력을 잃고 멸망해 버리는 史實을 소재로 하여, 諸行無常, 盛者必衰를 강하게 부각시킨 일대의 서사시이다. 고·중세 일본의 역사 구분은 奈良시대를 645-

794년까지, 平安시대를 794-1185년까지, 鎌倉시대를 1185-1333까지로 구분한다. 이 중 특히 平安시대는 이전 奈良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것을 성숙시키면서 화려하게 전개시킨 시대이고, 이어지는 鎌倉시대와 室町시대는 전 시대와는 달리 대표적인 武人政權時代로 구분된다. 이러한 무가사회의 형성은 平安시대 후기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는데, 그 중요한 계기는 承平(931-938)·天慶(938-947)의 두 亂을 계기로 武門이 형성되었고 武士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무인정권시대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平家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의 분석을 통해 12세기 후기의 일본 복식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미 연구 발표한 平安시대 전·중기의 복장양식<sup>1)</sup>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남자의 의복과 장신구 36종, 여자의 의복과 장신구 6종이고, 색채와 직물은 각각 10종, 6종이다.

## II. 『平家物語』 당시의 복식 양상

『平家物語』가 편찬될 당시, 일본에 있어서 복식의 일반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奈良시대 복식의 연속성 위에서 이루어졌다. 奈良시대의 禮服과 朝服이 平安시대에는 束帶와 衣冠으로 바뀌어지면서 계속 사용되었고, 狩衣, 直衣 등이 귀족 남자의 복식으로, 무사와 서민의 옷이었던 直垂, 素襖, 肩衣小袴 등이 일반화, 보편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武士계급의 대두와 함께 唐樣式이었던 圓領袍의 사용이 줄면서 소위 大鎧라고 하는 무사에게 맞는 새로운 양식이 갖추어졌다. 따라서 무사의 심볼인 甲冑가 발달하게 되었고 갑주 장식의 미와 함께 소도구인 弓矢, 刀劍, 下着의 裝束 등이 화려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발달되어 갔다.

셋째, 僧兵이 형성된 시대였다. 승병이란 寺院의 私兵으로서 平安시대 후기 이후 각 대사찰의 僧徒로서 불법 보호를 사명으로 하면서 武藝를 닦아 전투에 종사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승려처럼 머

리를 깎았으나 이를 감추기 위해 袈裟를 쓰고 특수한 복장을 하였다.

넷째, 의복의 형태에 強裝束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袍, 直衣 등의 옷감에 풀(糊)을 강하게 먹인 다든지, 冠이나 烏帽子的 끈(纓)에 漆을 하여 形을 갖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固形의 형태미를 갖추는데 매우 치중하였다<sup>2)</sup>.

다섯째, 의복에 간략화 현상이 나타났다. 종래의 大袖에 비해 小袖가 나타나는데 小袖는 귀족에게는 內衣로, 서민에서는 表着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上下가 통용하게 되었다<sup>3)</sup>.

여섯째, 화려한 색의 사용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8세기 말부터 의복에 있어서 '색의 시대'라고 칭할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었으나, 12세기 이후 服色에 대한 자료는 두드러질 만큼 적어지고 짙은 색조를 중심으로 소량 발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4)</sup>.

이상에서 볼 때 『平家物語』가 쓰여진 시대는 낭만적인 시대에서 政爭시대로, 文民사회에서 武家사회로 변화되는 시발점이었고, 強裝束化와 더불어 의복의 간소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복식의 자료가 여자복식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III. 자료의 발채와 분석

### 1. 자료의 발채

『平家物語』에서 발채된 자료는 58종이다. 그러나 甲, 鎧, 絨, 弓, 矢, 刀 등은 재료, 형태, 색상에 따라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명칭이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79종이나 되었다. 이것은 당시 武士들의 복식인 甲冑와 武具가 다양하고 화려하게 발달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발채된 자료를 남녀의 의복과 장신구, 색채, 직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특히 남자복식은 그 종류가 많았으므로 두의, 동의, 족의, 장신구로 세분화시켰고, 무사와 승병의 복식을 일반복식과 구분하였다.

<표 1> 『平家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일람

구분	종 류		가지수	
	무사 및 승병의 복식	일반 복식		
남자복식	두의	甲(五枚甲, 高角의 甲, 鍬形의 甲), 裏頭	烏帽子(立烏帽子, 折烏帽子), 髮카부로	4(5)
	동의	鎧(着背長, 腹卷), 緞(科皮緞, 黑皮緞, 赤皮緞, 萌黃緞, 緋緞, 黑絲緞), 直衣, 鎧直垂, 袈裟	束帶, 狩衣, 布衣, 淨衣, 直衣, 水干, 指貫	14(6)
	족의	貫, 平足駄		2
	장신구	弓(塗籠藤弓, 滋藤弓, 重藤弓), 矢(切斑의 矢, 薄切斑에 鷹羽 장식의 矢, 黑날개矢), 누마메의 鎧, 弦袋, (白柄)大長刀, 太刀(大太刀, 足白太刀, 黑漆太刀, 黃金太刀), 腰刀, (白)鞘卷, 雄劍, 楯	鐵槩黑	16(10)
여자복식	머리에 衣를 쓴 唐衣, 五衣, 二衣, 麻衣, 領布		6	
색채	薄青, 赤, 褐, 朽葉, 紺, 柳, 紅, 黑, 萌黃, 緋		10	
직물	長絹, 練貫, 綾, 魚綾, 唐綾, 錦		6	

2. 자료의 분석

1) 남자 - 무사와 승병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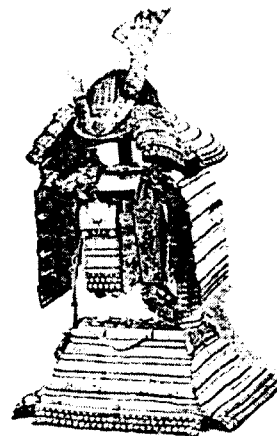
① 甲(카부로), 五枚甲, 高角의 甲, 鍬形의 甲 : 원래는 兜·冑로 써야 한다. 武士가 머리의 보호를 위해 쓰는 철모로서 平安 중기 이후 鎧의 발달과 함께 성행했던 星兜가 그 대표적이다. 머리를 넣는 부분을 鉢이라 하고 그 背面에 늘어뜨려 목을 덮는 부분을 革每라고 했다<sup>5)</sup>. 五枚甲은 革每이 5枚인 것을 말하며<sup>6)</sup>, 高角이나 鍬形의 甲이란 前面의 채양 위에 소빨이나 金物 등을 이용하여 鍬 즉 팽이모양의 높은 장식을 단 것을 말한다<sup>7)</sup>(그림1 참조).



<그림1> 鍬形장식의 甲(武士의 裝い P.11)

② 鎧(요로이), 着背長(키세나가), 腹卷(하라마

키) : 鎧는 武士의 갑옷이다. 만드는 법은 札이라고 하는 장방형의 小片 수십매를 가는 가죽 혹은 견사로서 가로로 연결하여 한 단으로 하고, 이것을 여러 단 계속 이어 앞 뒤 상반신을 덮는데, 이것을 札甲이라 하였다. 札甲은 중앙아시아에서 생겨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특히 이 시대 일본의 札甲은 한반도를 거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奈良시대에는 挂甲이라고도 불렀다<sup>8)</sup>. 札甲에는 여미의 위치에 따라 양옆 겨드랑이 아래에서 여미는 盤領式과 정면 중앙에서 여미는 方領式이 있었다. 前者는 兩當鎧라고도 불렀고, 이것은 鎧를 기본으로 하되 전체가 大形이라는 점에서 大鎧라고도 칭하였으며 室町시대를 전후하여 정식의 갑옷이 되었다(그림 2).



<그림 2> 大鎧 (武士의 裝い P.7)

後者は 下段을 잘게 분할하여 보행 전용의 갑옷으로 삼은 것인데, 胸腹部 전체가 덮여지도록 만들었으므로 腹卷이라고 불렸으며, 소매가 없고 배(腹)를 둘러서 등에서 합쳐지게 한 간편한 鎧였다<sup>9)</sup>(그림 3). 때로는 大鎧보다는 略時 要害를 위해 裝束의 아래에 입기도 했다<sup>10)</sup>. 着背長는 大鎧의 異稱으로 復卷나 胸丸보다 草摺의 길이가 길었으므로 이렇게 불렸고, 근세 이후 특히 大將軍이 입는 鎧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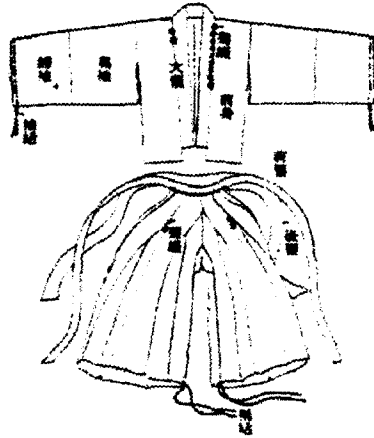
<그림 3> 腹卷(武士の裝い P.17)

③ 緘(오도시) : 한편 鎧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장방형의 札을 엮는 끈이다. 이것을 緘라고 하며 색상과 재료면에서 종류가 다양했다. 『平家物語』에서 표현된 것으로 科皮緘, 黒皮緘, 赤皮緘, 萌黄緘, 緋緘, 黒絲緘 등이 있는데, '~皮'로 표현되는 것은 무두질한 가죽을 사용한 것이고, 색만 표현되는 것은 견사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科皮緘의 鎧는 藍色의 가는 가죽을 엮고 거기에 고비, 고사리 등 양치류의 잎을 丸形으로 회색 염색한 鎧를 말하며<sup>12)</sup>, 黒皮緘는 검은 색 가죽, 赤皮緘은 붉은 색 가죽으로 엮은 것이고, 색에 따라서 萌黄, 緋, 黒 등의 종류도 있었던 것 같다. 또한 '萌黄 기미의 緘'<sup>13)</sup>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萌黄色(유록색)을 아래에서 위로 연하게 바래면서 엮어 만든 鎧를 말한다<sup>14)</sup>. 唐綾緘는 중국에서 온 능직물을 가늘게 잘라 겹쳐서 가죽만큼 두껍게 만들어 끈으로 사용한 것이다<sup>15)</sup>.

④ 直垂(히타타래), 鎧直垂(요로이히타타래) : 直垂는 당시 盤領에 반대되는 소위 垂領의 옷으로

盤領이 公家の 옷임에 비하여 服飾文化史上 平安시대 말기부터 鎌倉시대에 걸쳐서 武家복식의 주류였고, 平氏가 그 중심적 위치로서 작용했다<sup>16)</sup>. 角襟(垂領式)이고 袖口에는 소매끈이 있으며 5곳에 菊綴이 장식되어 있고, 가슴에 끈(胸紐)이 있다<sup>17)</sup>. 한편 장식적인 면에서 直垂의 衿(衿)이나 소매자락(袂<sup>18)</sup>)에 別色の 綵를 낸 것도 있고<sup>19)</sup>, 魚綾의 直垂도 있었다<sup>20)</sup>. 戰場에서 直垂를 입는다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鎧直垂를 의미하며 武將이 鎧 아래에 입고 소매도 좁고 길어도 짧다<sup>21)</sup>(그림 4 참조). 한편 소매와 아랫자락 끝을 끈으로서 오므려 활동하기에 편하게 하기도 했다<sup>22)</sup>.

⑤ 貫(츠라누끼) : 武士가 武裝을 갖추는 때 신는



<그림 4> 鎧直垂(有謙故實圖典 p.174)

모피로 만든 淺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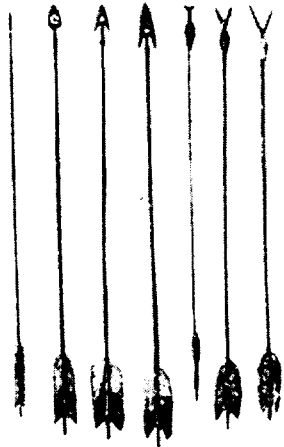
⑥ 弓(유미), 塗籠藤弓(누리고메도오노 유미), 滋籐弓(시게도오노 유미), 重籐弓 : 활을 의미하는데, 塗籠藤弓은 藤나무를 촘촘히 감아서 옷칠하여 고정시킨 것이고<sup>23)</sup>, 滋籐弓은 重籐弓이라고도 쓰며 아래 바탕을 검게 칠하고 그 위를 점점이 흰 引籐으로 당겨서 감은 활, 大將들이 소지한 것이다(그림 5 참조).

⑦ 矢(야), 切斑의 矢, 薄切斑에 鷹羽 장식한 矢, 黒날개 矢 : 화살의 종류이다. 切斑의 矢는 백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매(鷹)의 날개로서 만든 화살이고<sup>24)</sup>, 薄切斑에 鷹羽 장식의 矢이라는 것은 切斑의 黒색 무늬가 연한 것 두장과 매의 날개 두장

을 서로 교차시켜서 만든 것이다<sup>25)</sup>. '黑날개 矢'는 매의 양 날개 아래의 털을 검게 염색하여 화살 끝에 단 것인데<sup>26)</sup>, 때로는 독수리의 털을 사용하기도 했다<sup>27)</sup>. 모두 화살 장식의 측면에서 붙여진 말이다<그림 6 참조>.



<그림 5> 滋藤弓(廣辭苑 p.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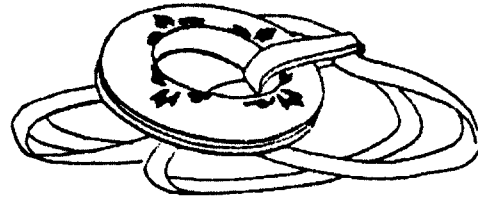


<그림 6> 矢의 종류(有識故實圖典 p.219)

⑧ 鏑(카부라) : 鏑은 일반적으로 화살의 전체 모양을 의미한다. 『平家物語』에서는 '사슴뿔 얼룩무늬의 鏑'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슴뿔로 만들어 몸체에 파도와 같은 무늬가 있는 화살을 의미한다<sup>28)</sup>.

⑨ 弦袋(츠루부쿠로) : 弦卷의 古名이며, 예비용 화살끈(弦)을 감아 두는 도구이다. 葛藤 또는 藤으로서 環모양으로 만들고 중앙에 구멍을 뚫어 籠의

腰草 등에 늘어뜨려 휴대하였다<그림7 참조>.



<그림 7> 弦卷(廣辭苑 p.1739)

⑩ (白柄)大長刀(오오나기나타) : 長刀는 薙刀, 眉尖刀라고도 쓰며, 칼날이 길고 손잡이도 길게 만든 것이다. 손잡이는 銅, 鐵 등을 蛭卷으로 한 것이 많다. 平安 말기부터 歩兵과 僧兵이 人馬를 칠 때 사용했으나 戰國시대에는 쇠퇴하였고 江戸시대에는 여자의 무도 도구로서 발달되었다<sup>29)</sup>. 大長刀, 小長刀가 있고, 白柄이란 손잡이를 옷칠하지 않고 木質 그대로 만든 것이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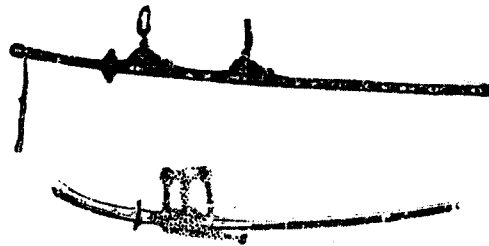
⑪ 太刀(타치), 大太刀, 黃金太刀, 足白太刀, 黑漆太刀 : 太刀는 큰 칼인데 足白太刀는 칼집의 具를 銀으로 만든 것이고, 흑칠은 칼집을 검게 칠한 것이다<sup>31)</sup>. 또한 太刀의 종류로는 黑漆白作太刀, 兵具鍔太刀, 長覆輪太刀, 蛭卷太刀, 藤卷太刀, 絲卷太刀, 革卷太刀 등이 있는데<sup>32)</sup> 이들은 모두 칼집의 具 장식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그림 8>

⑫ 腰刀(코시가타나) : 허리에 차는 손잡이가 없는 작은 칼을 말한다.

⑬ (白)鞘卷(시로사야마끼) : 鞘卷는 손잡이가 없는 短刀이고<sup>33)</sup>, 白鞘卷는 손잡이(柄)나 칼집(鞘) 등을 銀의 金具로서 장식한 것이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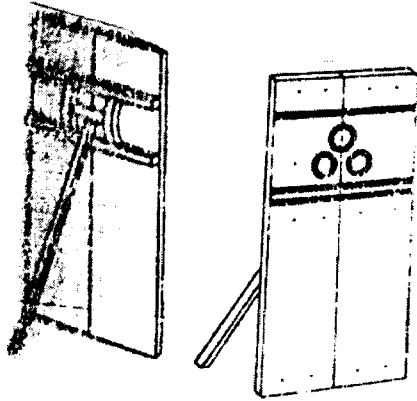
⑭ 雄劍(유우젠) : 大劍을 말하며 雄은 미칭이다<sup>35)</sup>.

⑮ 楯(타테) : 방패. 옛날에는 전쟁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황족의 장례나 제사 등의 행렬에도 사



<그림 8> 太刀의 종류(有識故實圖典 p.219)

용되었다. 春日權現靈驗記繪卷<sup>36)</sup>에 그려져 있는 방패를 보면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모양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楯(古語辭典 p.1008)

⑯ 裏頭(카또오)<sup>37)</sup> : 僧兵 모습이다. 그들은 승려처럼 머리를 깎았으나 이를 감추기 위해 白麻五條의 袈裟를 썼고, 의복은 속에 白麻의 小袖와 白色의 葛袴를 입었으며, 그 위에 腹卷과 黑馬褌子<sup>38)</sup>의 素絹을 차례로 입는 등 특수한 모습을 갖추었다. 특히 허리에는 黑漆太刀를 찻고, 오른손에 薙刀(長刀)를 들었으며, 足駄를 신어 의복의 신 양식을 만들어 내었다<sup>39)</sup> <그림10>



<그림 10> 僧兵의 모습(有識故實圖典 p.216)

⑰ 袈裟(케사) : 梵語 kasaya 회색이라고 번역하며 不正雜色의 뜻이다. 左肩에서 右腋 아래로 걸쳐

서 옷 위를 덮어 입는 많은 조각으로 이어 만든 승복이다.

⑱ 平足駄 : 齒가 낮은 足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僧兵의 기본 모습이다<sup>40)</sup>.

## 2) 남자 - 일반 복식

① 烏帽子(에보시), 立烏帽子, 折烏帽子 : 烏帽子는 幘頭와는 다른 胡服系 帽의 일종으로서 용도나 모양에 따라 立烏帽子, (風)折烏帽子, 侍烏帽子, 引立烏帽子, 柔烏帽子 등의 종류가 있었다<sup>41)</sup>. 『平家物語』에서는 立烏帽子和 折烏帽子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는 狩衣에 착용된 것이었다. 折烏帽子는 風折烏帽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立烏帽子가 바람에 접어진 모습을 형식화한 것으로, 上皇은 두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折烏帽자의 경우 오른쪽으로 접어 넘겨 諸臣의 왼쪽 접음과 구별하였다. 또한 諸臣 중 堂上은 折烏帽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地下<sup>42)</sup>는 위계에 관계없이 모두 折烏帽자를 사용했다<sup>43)</sup>. 특히 鎌倉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접어 넘기는 방법을 平家에 닮게 하는 것이 매우 유행하였다<sup>44)</sup>.

한편 『平家物語』에 '烏帽子子'라는 것이 나온다<sup>45)</sup>. 이것은 武士가 元服할 때 烏帽자를 씌어주고 이름을 주는 사람 쪽을 烏帽子親, 烏帽子親에 대해 元服을 입는 젊은이 쪽을 烏帽子子라고 부른 것이다<sup>46)</sup>. 이 사실에서 보면 烏帽자는 또한 武士의 성인식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束帶(소쿠타이) : 문무백관이 公事나 節會에 착용하는 正服으로, 源高明<sup>47)</sup>이 쓴 『西宮記』에 「出御御束帶」라고 있으므로 10세기 초에 이미 束帶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대소의 행사는 대부분 束帶裝束으로 행해졌으므로 晝裝束이라고도 했고, 이 裝束으로서 완비될 수 있다는 뜻에서 物具<sup>48)</sup>라고도 불렀다. 奈良시대의 朝服에서 발전되었으나 禮裝으로서 착용된 이후 그 생명력이 매우 길어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전통예복으로 착용되고 있다. 형태, 착용법, 구성상에 다소의 변화가 있을 뿐 鎌倉시대 이후의 모습은 平安시대 말기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文武의 신분에 따라 縫腋과 闕腋束帶로 구분되나 武人이라 할지라도 3위 이상은

縫腋束帶를 착용했으며<sup>49)</sup>, 옷의 구성은 幘頭의 변형인 冠, 圓領의 袍이다. 명칭은 달라도 한·중·일이 유사하게 착용된 관복이었다.

③ 狩衣(카리기누), 布衣(호오이), 淨衣(조오에) : 수렵 때 사용하는 옷이라는 뜻에서 狩衣라고 불렀고, 다르게는 雁衣라고도 하고, 또한 양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으므로 襖<sup>50)</sup>라고도 했다. 關腋袍가 앞몸판이 2폭인데 대해 狩衣는 1폭이다. 따라서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진동을 뒤쪽만 붙이고 앞부분을 띄어 놓았다. 옛날에는 布로 만들어 布衫, 布衣이라 불렀으나 후일에는 絹, 綾 등의 화려한 직물로도 만들었으므로, 有文의 것을 狩衣, 無文의 것을 布衣라고 부르기도 했다. 활동복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색이나 문양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上皇과 親王 그리고 有位의 諸臣과 地下 이상은 狩衣를 착용했고, 地下 이하는 布衣를 착용했다<sup>51)</sup>. 建曆2년(1212) 『法然上人繪傳』에서의 狩衣 모습을 보면 뒷자락을 허리에 접어 넣어 입기도 했다.

④ 淨衣는 狩衣와 동형이기는 하나 神事, 佛參 때 착용하는 白色無文의 것을 지칭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布製였으나 上皇의 경우 生絹을 사용하였다<sup>52)</sup>.

⑤ 直衣(노오시) : 衣冠을 宿衣<sup>53)</sup>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보통의 옷, 평상시의 옷이라는 뜻에서 直衣라고 불렀다. 束帶나 衣冠의 袍처럼 위계에 따라 색에 규제가 없었으므로 일명 雜袍라고도 했으나 궁중에 출입시 허락을 얻은 자는 일정한 선례에 따라 색에 제한을 받았다. 天皇은 약식 예를 갖출 때 이것을 착용했는데, 예복 규정 이전의 왕의 옷색인 백색으로 하였다. 平安시대에 생겼고 이후 烏帽子直衣, 冠直衣, 束帶直衣 등으로 점차 격식을 갖추면서 다양하게 변화되다가 平安 후기부터 뒷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引直衣를 만들어 천황이 착용하였다. 비상시나 공놀이, 帳臺試<sup>54)</sup>에 참석할 때는 上直衣를 입었다<sup>55)</sup>.

⑥ 水干(수이간) : 水干이란 '옷을 풀하지 않고 물에 그냥 씻어서 말린다'는 의미이다. 주로 백색 생견을 사용했고 그 모양은 盤領關腋形인데 狩衣와 비슷하다<sup>56)</sup>. 狩衣가 고위의 官人이 입는데 비해 水干은 서민용이었고 平安시대 말기까지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1세기의 문학작품인 枕草子, 源氏物語, 榮花物語에는 水干이 보이지 않아 水干은

12세기 이후에 한층 보편화된 의복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平安 전기가 왕족이나 귀족의 옷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는데 비해 그 후기는 일반 서민의 옷이 구체적으로 발달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⑦ 指貫(사시누끼) : 발목에 묶는 끈이 있는 긴 바지. 狩衣를 착용할 때 입는다.

⑧ 髮(카미)카부로 : 『平家物語』에서는 '14, 15, 16세의 남자 아이들을 300명 모아 머리를 카부로 모양으로 자르고……'<sup>57)</sup>라고 있다. 그 注에 카부로란 머리를 둥글게 깎은 것으로 현재의 단발머리 모양이라고 하였다<sup>58)</sup>. 당시 남자아이들의 머리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⑨ 鐵漿黑(카네구로) : 平家の 아들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빨을 검게 칠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에 나온다.<sup>59)</sup> 이것은 鐵을 茶 또는 酢에 담구어 산화시킨 액체에 분말의 오배자를 가하여 칠한 것인데, 이 풍습은 이전에는 여성에게 한하였으나 12세기 초 토바천황(鳥羽天皇 : 재위 1107-1122)때 귀족 남자 사이에 유행하였고 平家の 후손들도 이것을 따랐다. 20세기 초까지도 일본에서 여성들이 하고 있었던 풍습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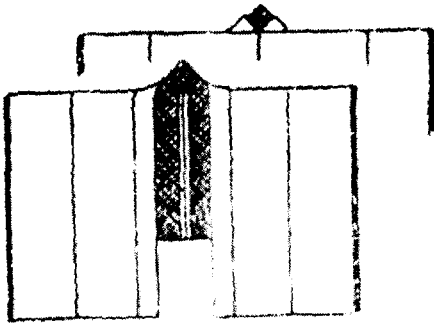
3) 여자 복식

① 머리에 衣를 씌<sup>60)</sup> : 中古의 부인들은 외출시에 머리에 衣를 쓰고 市女笠 등을 썼다. 이 옷을 카즈키 혹은 카츠기라고 했다<sup>61)</sup>. 머리에 衣나 市女笠 등을 쓴 모습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머리에 衣를 쓴 모습(廣辭苑 P.636)

② 唐衣(카라기누) : 짧은 상의이고 앞길은 소매 길이와 같고 뒷길보다는 길다. 원래는 大領<sup>62)</sup>과 紐가 있었으나 平安시대 모두 없어지게 되었고 단지 길이가 짧은 하오리(羽織)처럼 되어 버렸다(그림 12).<sup>63)</sup> 한편 『西宮記』<sup>64)</sup>의 천자 예복조에는 「后御裝束 靑綵衣韓衣」라고 있는데, 여기서 韓衣는 背子라고도 쓰며 후세의 통상 唐衣가 되었다. 또한 韓衣는 정면에서 여미는 肩衣風 上半身衣로 奈良시대 부터 사용되었는데 女神像의 모습에 그 자취가 남아 있다<sup>65)</sup>.



<그림 12> 唐衣(廣辭苑 P.543)

③ 五衣(이츠츠키누) : 여성 정장인 唐衣裳의 착용시 表着 아래에 입는 것으로 같은 옷을 색만 다르게 하여 보통 5枚 입는다고 하여 그 이름이 있다. 그러나 사치가 심할 때는 18-20枚까지도 입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금지하는 법령을 내린 적도 있었다. 『平家物語』에는 柳의 五衣라고 있는데<sup>66)</sup> 柳는 걸이 白, 안이 靑인 靑色目이다.

④ 二衣(후타츠키누) : 속옷인 裵(아꼬메)를 2枚 겹쳐서 입는 것을 말하며<sup>67)</sup>, 본 내용에서 二衣는 鎧와 마찬가지로 練貫으로 만들었다고 있으므로, 裵도 위·경사를 숙·생사를 사용했던 것 같다.

⑤ 麻衣(아사노코로모) : 불전에 들어간 자가 입는 麻로 된 黒染의 옷을 말한다<sup>68)</sup>.

⑥ 領布(히레) : 일반적으로 奈良, 平安시대 여자에게 사용된 복식의 하나로서 목에 걸고 좌우에 길게 늘어뜨린 布帛을 말하는데, 나아가 바람에 휘날리는 얇은 천의 총칭으로도 정의되며, 고대 害虫, 毒蛇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술적 의미에서 두른 布를 의미할 때도 있었다<sup>69)</sup>.

#### 4) 색채

『平家物語』에 있어서 색의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이것은 平安시대 전기 낭만적이고 화려한 복색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平安 후기에는 색에 있어서 의의를 크게 두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현되고 있는 색명으로는 狩衣의 색으로 薄靑, 直衣의 색으로 赤, 直垂의 색으로 朽葉, 赤, 紺 그리고 鎧의 絨色으로서 萌黃, 緋, 黒, 紺色, 僧服의 색으로서 黒이 나온다. 그리고 靑色目으로서는 五衣에 柳色이 있다. 여기서 薄靑色은 옅은 청색을 말하는 것이고, 朽葉은 적색 기미를 띤 황색으로 색은 낙엽의 색을 말한다<sup>70)</sup>. 또한 萌黃色은 황과 청의 중간색으로 연한 녹색을 의미하며, 柳色은 백색 기미가 도는 청색이다<sup>71)</sup>. 한편 僧服의 색이 흑색인 것은, 官服에 있어서도 平安시대 말기에 흑색이 특히 선호되었던 현상<sup>72)</sup>과 더불어 불교의 정토사상과도 관련이 있고, 이 시대를 즈음하여 喪服도 僧服의 영향을 받아 흑색으로 바뀌었다<sup>73)</sup>.

『平家物語』에서 특별한 것은 褐色으로서 이것은 통상 赤褐 혹은 茶褐의 색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濃紺色이다. 즉 이때의 褐은 '카치' 혹은 '카친'이라고도 하며, 쪽(藍)을 찌어서 염색한다는 뜻이었고<sup>74)</sup>, 또한 勝과 그 음이 통하여 주술적인 의미에서 鎧直垂의 색으로서 크게 애용되었다<sup>75)</sup>. 武人사회에서 유행한 색이다.

#### 5) 직물

색과 마찬가지로 직물에 있어서도 특이할 사항은 별로 없이 綾羅錦繡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단지 綾에는 直垂에 魚綾, 絨에 唐綾의 종류가 있었고, 絹에는 長絹이라 하여 광택이 있는 견직물이 있었다<sup>76)</sup>. 다소 특징적인 것은 練貫으로서 이것은 견사의 위·경사의 성질을 다르게 한 것으로, 위사는 갯물에 삶아 부드럽게 만든 것을 사용하였고 경사는 생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平家物語』에 練貫에 鶴綾을 한 直垂라고 있는데<sup>77)</sup>, 이것은 練貫에 학무늬를 수놓은 直垂이므로 매우 화려한 옷으로 추정된다.



## IV. 맺는말

본 연구는 1131년부터 1198년까지의 약 70년간에 쓰여진 『平家物語』를 대상으로 그 속에 묘사된 복식을 연구한 것이다. 역사적 배경은 平安시대 말기로서 이후 계속되는 鎌倉·室町시대와 함께 대표적인 무인정권시대의 시발점이었다. 대상이 되는 자료는 남자의 의복과 장신구 36종, 여자의 의복과 장신구 6종이고, 색채와 직물은 각각 10종, 6종이었다.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남자의 복식

1) 武家社會의 형성과 아울러 武士에게 맞는 양식인 鎧 혹은 腹卷, 甲과 緘가 다양하고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었고, 鎧 아래에는 鎧直垂를 입었고 貫을 신었다. 활과 화살에 장식을 다양하게 하였고 칼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2) 僧兵이 활약한 시기로 그들은 머리를 깎고 小袖, 葛袴에 腹卷과 素絹을 입었으며 袈裟를 들었다. 黒漆太刀를 찮고 薙刀(長刀)를 들었으며 高足太나 平足駄를 신었다. 이들은 裏頭라고도 불렀다.

3) 남자 일반복식 종류로는 烏帽子를 비롯하여 束帶, 狩衣, 布衣, 淨衣, 直衣, 水干, 指貫 등이 있었다. 烏帽子和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으로 烏帽子子과 烏帽子親이 있었는데 이것은 武士가 元服할 때 被服者와 加服者를 각각 가리켰다.

4) 어린 남자 아이들은 단발머리를 하기도 했고, 平家の 자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빨을 검게 칠하는 습성이 있었다.

### 2. 여자의 복식

부인들은 외출 시에 머리에 衣를 쓰기도 했고 市女笠을 썼다. 唐衣, 五衣, 二衣, 領布 등은 奈良시대 때부터 있었던 유습으로 큰 변화없이 사용되었고, 女僧의 옷 혹은 喪服으로 麻衣가 있었다.

### 3. 색 채

색명의 종류는 많지 않아 다양한 색조의 현상을 볼 수 없었고, 특이한 것은 褐色이 濃紺色으로서 勝과 그 음이 통하여 鎧直垂의 색으로서 애용되었다. 그 외 鎧의 緘에 사용되는 재료를 화려하게 염색하기도 했다.

### 4. 직물

직물면에서 역시 다양한 물 종류를 볼 수는 없었다. 綾의 종류로는 魚綾과 唐綾이 있었고, 絹에는 長絹이라 하여 광택이 있는 견직물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직물의 특징적인 것으로서는, 위사는 깃물에 삶아 부드럽게 만들고 경사는 생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직조한 練貫이 있었다.

이상 『平家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남자의 의복과 장신구가 월등히 많으며, 특히 武服에 관계되는 자료들이 많아, 일반적인 현상 즉 여자의 복식이 항상 많고 화려하게 묘사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현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平家物語』 자체가 武家社會를 배경으로 엮어진 문학작품이고, 이것 역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복식 경향은 낭만적 정취의 미적 가치보다는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복식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차후 이점은 의복과 사회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주변 국가의 상황들과 재 비교해 보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미주

- 佐伯梅友 監修, 平家物語, 東京, 三省堂, 1982.
- 丸山伸彦, 武士の装い, 京都, 京都書院, 1994.
- 鈴木敬三, 有識故實圖典, 東京, 吉川弘文館, 1995.
- 新村出編, 廣辭苑, 東京, 岩波書店, 1998.
- 中田祝夫 외2인, 古語辭典, 東京, 小學館, 1994.
- 伊藤慎吾, 風土上よりみたる源氏物語描寫時代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1968.
- 高橋健自, 歷世服飾圖說, 東京, 聚精堂, 1934.
- 烏居本幸代, 平安末期の服飾についての-考察-強裝束の成立をめぐる- 服飾美學.
- 烏居本幸代, 平家物語にみる武士の服飾について, 服飾美學.
- 吉村佳子, 中世日本の服飾 -風流の精神を中心として-, 服飾美學.
- 紫田美恵, 藤原期における位色の變容に関する一試論 -紫から黒への移行をめぐる- 服飾美學.
- 문광희, 『枕草子』의 복식자료 연구, 복식 28호, 한국복식학회, 1996.
-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1호, 1997.

- 문광회,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의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35호, 한국복식학회, 1997.
  - 문광회,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색채와 염색을 중심으로-, 복식43호, 한국복식학회, 1999.
- 1) 문광회,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복식 28호, 한국복식학회, 1996.  
문광회,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1호, 1997.  
문광회,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의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35호, 한국복식학회, 1997.  
문광회,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색채와 염색을 중심으로-, 복식43호, 한국복식학회, 1999.
  - 2) 烏居本幸代, 平安末期の服飾についての-考察-強裝束の成立をめぐって- 服飾美學, p39.
  - 3) 吉村佳子, 中世日本の服飾-風流の精神を中心として-, 復飾美學, p30.
  - 4) 1000년경에 쓰여진 枕草子에서는 전 복식자료 중 색채의 비율이 31/85종이었고, 그 보다 약 6-8년 후에 쓰여진 源氏物語에서는 48/121종이었으며, 1086년부터 약 20년간 쓰여졌다고 하는 榮花物語에서는 60/127종이었다. 각각 약 36%, 40%, 47%의 비율로 색채의 명칭이 다수 표현되고 있었다(문광회, 일본 平安시대의 복식 색채분석, 동의논총27집, 인문사회과학편, 동의대학교, 1997,11).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인 『平家物語』에서는 20%를 못 미치고 있다.
  - 5) 新村出編, 廣辭苑, 東京, 岩波書店, 1998, かぶと.
  - 6) 佐伯梅友 감수, 平家物語, 東京, 三省堂, 1982, p.112, 注3.
  - 7) 平家物語, P.122, 注3, P.208, 注4.
  - 8) 鈴木敬三, 有識故實圖典-服裝と故實, 東京, 吉川弘文館, 1995, p.155.
  - 9) 平家物語, p.10, 注7.
  - 10) 鈴木敬三, 앞책, pp.155-157.
  - 11) 中田祝夫 외2인, 古語辭典, 東京, 小學館, 1994, きせなが.
  - 12) 平家物語, 東京, 小學, 1994, p.110, 注9.
  - 13) 원문에는 '萌黃にほひ緘'라고 있는데 본인이 '萌黃기미의緘'로 번역하였다.
  - 14) 平家物語, p.228, 注8.
  - 15) 平家物語, p.208, 注3.
  - 16) 烏居本幸代, 平家物語にみる武士の服飾について, 服飾美學, p.16.
  - 17) 平家物語, p.31, 注10.
  - 18) 袖口の 한쪽 또는 반쪽 부분, 平家物語, p.271, 注2.
  - 19) 平家物語, p.271, 注2.
  - 20) 平家物語, p.199, 注14. (파도에 고기무늬가 있는 능직물로 만든 直垂로 생각되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 21) 平家物語, p.208, 注2와 p.221 참조. (본문에 설명되고 있는 것은 戰場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때의 直垂는 赤色으로 된 錦도 있고 紺色으로 된 錦도 있다.)
  - 22) 平家物語, p.110, 注8.
  - 23) 平家物語, p.112, 注6.
  - 24) 平家物語, p.228, 注9.
  - 25) 平家物語, p.269, 注7.
  - 26) 平家物語, p.112, 注5.
  - 27) 廣辭苑, 앞책, 黒ぼろの矢.
  - 28) 平家物語, p.269, 注8.
  - 29) 廣辭苑, 앞책, なぎなた.
  - 30) 平家物語, p.112, 注7.
  - 31) 平家物語, p.269, 注4.
  - 32) 鈴木敬三, 앞책, pp.175-178.
  - 33) 平家物語, p.8, 注20.
  - 34) 平家物語, p.35, 注15.
  - 35) 平家物語, p.17, 注3.
  - 36) 春日權現靈驗記繪卷은 奈良에 있는 春日紳士가 창건의 유래와 영험을 기록한 20권의 책. 鎌倉시대 말기의 대표적인 작품.(廣辭苑, 앞책, かすがごんげんけんきえまき)
  - 37) 裏頭를 平家物語에서는 頭からげ라고 나온다. 平家物語, p.116.
  - 38) 흑색의 馬로서 꼬아서 짠 것.
  - 39) 鈴木敬三, 有識故實圖典, 東京, 吉川弘文館, 1995, p.216.
  - 40) 平家物語, p.116, 注14.
  - 41) 문광회,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57 참조.
  - 42) 清涼殿에 昇殿이 허가되지 않는 官人, 또는 家格. 일반적으로는 6위 이하의 신분을 말하고, 상대적으로는 5위 이상을 殿上, 堂上이라고 하였다.
  - 43) 鈴木敬三, 앞책, p.89.
  - 44) 平安物語, p.29.
  - 45) 平家物語, p.199.
  - 46) 平家物語, P.199, 注7.
  - 47) 醍醐天皇(재위 : 897-930)의 황자.
  - 48) 物具는 모두 갖추어 정비되었다는 뜻으로, 속칭 十二單라고 하는 女房裝束지만, 武士가 一期의 晴着으로 하는 大鎧도 마찬가지로 物具라고 불렀다.
  - 49) 鈴木敬三, 앞책, p.8.
  - 50) 양 겨드랑이가 터져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襖라고 하는데, 武官의 關腋袍를 位襖라고 부르는데 대해, 狩衣는 狩襖라고 불렀다(廣辭苑, 앞책, あお)
  - 51) 鈴木敬三, 앞책, pp.90-92.
  - 52) 鈴木敬三, 앞책, p.100.
  - 53) 宿直衣 혹은 宿直裝束이라고도 쓰여 궁중에 숙직하는 官人이 입는 옷을 말한다.
  - 54) 五節로 11월 丑의 날에 천황이 常寧殿의 帳臺에 나아

- 가 舞姬들의 춤을 下見하는 의식.
- 55) 鈴木敬三, 앞책, pp.81-83.  
문광회,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53 참조.
- 56) 平家物語, p.35, 注13.
- 57) 髪をかぶろに 切りまほし, 平家物語, p.31.
- 58) 平家物語, p.31, 注9.
- 59) 平家物語, p.222.
- 60) 平家物語에서는 かずきたる衣라고 나온다. 平家物語, p.66.
- 61) 平家物語, p.66, 注9.
- 62) 袍, 狩衣 등의 盤領의 前襟, 후세에 전하여 衤이 된다 (廣祥苑, 앞책).
- 63) 高橋健自, 歷世服飾圖說, 東京, 聚精堂, 1934, p.63.
- 64) 村上天皇(926-967) 당시의 궁중 예법을 한문으로 기술한 有識書.
- 65) 鈴木敬三, 앞책, p.124.
- 66) 平家物語, p.267, 注8.
- 67) 平家物語, p.250, 注10.
- 68) 平家物語, p.296, 注16.
- 69) 문광회,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복식28호, 1996, p.59.
- 70) 廣祥苑, 앞책, くちばいろ.
- 71) 문광회,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164.
- 72) 紫田美恵, 藤原期における位色の變容に関する一試論 一紫から黒への移行をめぐって一, 服飾美學, p.1.
- 73) 伊藤慎吾, 風土上よりみたる源氏物語描寫時代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1968, p.656.
- 74) 平家物語, p.112, 注2.
- 75) 平家物語, p.269, 注1.
- 76) 平家物語, p.110, 注7.
- 77) 平家物語, p.228, 注7.